“그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광아의 길”

(신명기 8:4-10)

광아의 시간이라면 광아의 길을 걸어야 하는 시간일 텐데, 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광아의 시간, 광아의 길에는 오직 광아의 소리만 존재를 하는데, 그 광아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사랑 음성입니다. 이 광아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믿음은 그해는 시간부터 하나님과 모든 자녀는 그 하나님을 그 길에서 만나고 그의 뜻처럼 복사를 받게 됩니다. 어린도 자녀를 두고 암 투병과 함께 사별한 인생으로 광아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한 고인 집사님의 사정을 소개합니다.

“영언의 피를 좇던 생각이 광아 길로 들어서서 머뭇머뭇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길을 건넌 걸음이 광아 길로 들어서며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오미화자님에 인연(미음)이 광아 길로 들어서며 사색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광아에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 없이 일출할 만년의 축복 땅이 살 수 있었습니다. 아예 광아에서 소외되지 않습니다. 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노라. 분명한 병든 몸을 가져왔는데 주님이 먼저 주신 것은 아픈 나의 몸이 아니라 성한 나의 미음이었습니다. 분명 나는 고쳐주시길 간구했는데 주님이 회복시킨 것은 병든 나의 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길도 함께 온 광아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 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은 분명한 길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은 영언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믿고 믿음을 하십니다. 정답은 ‘그의 길입니다. 이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의 길이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길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성한 목자가 되신 것이고, 내 길이란 진리요, 생명이요, 믿음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78편 52절 말씀과도 같이 “그가 사기 베푸신 영언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아에서 양떼같이 인도하고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광아의 길을 걷는 그의 양을 그냥 두시지 못하십니다. 목자가 되어 함께 하고 돌이켜 돌이켜 돌이켜 함께 하신다. 양은 어디까지나 영약하고 영한 양입니다. 사자가 걸터 앉아 바로 앞에 있는 것은 양들이나 개처럼 양이 걸터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의 명령을 구별해 잘 들을 수 있는 온체를 하나임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에게 있어 가장 귀한 생명체인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늘 지켜줍니다. 양에서는 길을 만들어 가면서 지켜줍니다. 때문 뒤에서 그 길로 양들이 가는지 바라보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양이 인도하면 양으로 가서 지킴이와 채찍과 같은 막대기로 양을 버릴 길로 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광아의 길에서는 반드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그 때야 주님의 말씀이 나의 발걸음에 응음이 되고 그의 말씀이 곧 그의 길임으로 나의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가 되시고 Way Maker가 되시는 그분의 말씀 따라 그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모두 어느 순간에 이런 고개를 하나에 드게 될 것입니다. 광아에서도 너희가 당혹하게 된 사람이 자기 의의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은 영언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이끌게 하신다. 그러니 신명기 8:4에서 아가를 인도하여 인도하면 양은 양주사나 목자처럼 이라도 록 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뜻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시는 아들이나 딸이나 아내나 본친과 생이 불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과 보리와 소시키며 모든 양과 무척과 나무 그리고 식물과 갈대 나무와 풀의 소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광아의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목자는 이 땅에서 살만 아내 남편과 한 자 세 가지에도 이미 주사기로 약속하신 아버지의 짐과도 합니다. 이 땅에서 광아의 길 순례의 길 중은 그 길을 밟을 때면 가면 바로 그 약속의 명으로 인도를 받게 됨을 믿고 어떤 한 주도 그 믿음의 그의 길을 따라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사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으로 함께 일어서는 능력의 공동체”

2025년 포어

“내 개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회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3:34)

사람의 5대강령: 하나님 사랑, 교회사랑, 다음세대 사랑, 서로 사랑, 영혼 사랑

일반전회	교회학교
새벽기도회 매주일 토 오전 6시	오전 예배부 주일 오전 10시
드림 워십 주일 오전 8시	영아부 주일 오후 12시
글로벌 워십 주일 오전 10시	유아부 주일 오후 12시
블레싱 워십 주일 오후 12시	유치부 주일 오후 12시
청년예배 주일 오후 12시	초등부 주일 오후 12시
영아예배 주일 오전 10시	중고등부 주일 오후 12시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시	리브미션부 주일 오후 12시
수요요양기도회 수요일 저녁 8시	세비나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우 아 부 최수진 사모 (917)526-1344	1, 2성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우 치 부	창2성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초 등 부 최주안 전도사 (646)662-0691	3 선 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중 고 등 부	4 선 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리브미션 박명애 전도사 (718)737-1643	5, 6선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청 년 부 김성준 목사 (617)949-1118	허스패닉 이호성 목사 (646)549-6043
영아회 중 홀 김 목사 (201)679-2924	네 팔 다넬 바오넷 목사 (201)927-0220
행 정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몽 골 티사 투를들 목사 (646)467-2675
양 육 육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다민족지역 양영란 전도사 (917)533-9511
새 끼 족 부 최순성 목사(성) 박수진 전도사(부)	시니에서역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신 범 부 박수진 전도사 (646)642-9331	

단체 기독교TV(타임워너 케이블 487)/매주 금요일 저녁 8시(만양송)
토요일 오전 11시(재방송)

1부 예배 8:00am	2부 예배 10:00am	2025년 6월 15일	3부 예배 12:00pm
드림 워십 인도: 최순성 목사	글로벌 워십 인도: 김성준 목사		발령장 워십 인도: 최순성 목사

*경배와 찬양 Worship Song	두 번째 찬양팀	신앙교백	사도신경
*기원 Invocation	인도자	경배와 찬양	블레싱 찬양팀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제2편 '시편(Psalms) 34편'	기도	김지수 집사
*신앙노백 Confession/Kin	사도신경 Apostles Creed	성경봉독	하브리서 13:15-19
찬송 Hymn	새482장(통533) '바람의 주여 소망되소서' Be Thou My Vision	성경봉독	하브리서 13:15-19
기도 Prayer	김준업 찬문 (Elder Jeon Yoo-kin)	성경봉독	하브리서 13:15-19
*봉헌 Offering	신명기 (Deuteronomy) 8:11-20	성경봉독	하브리서 13:15-19
찬양 Anthem	새173장(통348) '1815년 영드리나'(4월) Take My Life and Let Me Live	성경봉독	하브리서 13:15-19
성고 Practicing	클로리아 찬양대 '바울의 기도'	찬양	'주 임재 안에서'
*찬송 Hymn	"영지 밭이아 할 광아의 길" The Wilderness Road We Must Not Forget	축도	최순성 목사
*축도 Benediction	김학진 목사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s			

(*표는 가능하면 일어나십시오 / Stand if able)